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13

반도체, 매그니피센트 7이 상승을 견인한 미 증시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매그니피센트 7

•미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상승을 견인하며 지난 10거래일 중 9거래일이나 상승하며 7주만에 최고치 기록. TSMC의 양호한 10월 매출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중국向 AI 반도체 신제품 출시 등 반도체 및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 소식에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 이에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0월 고점에서 급락한 데 이어 최근 8거래일 연속 하락 기록. 다만,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간 점은 부담. (다우 +1.15%, 나스닥 +2.05%, S&P500 +1.56%, 러셀2000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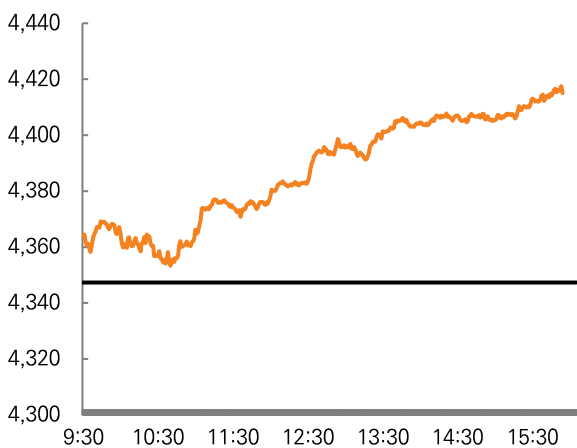
특징 종목: IT 중심 전 업종 상승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상승. 매그니피센트 7이 포함된 IT(+2.5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68%), 경기소비재(+1.66%) 등이 상승을 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4% 넘게 급등.
 •(상승) 매그니피센트 7은 평균 2.35% 상승을 기록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 엔비디아(+2.95%)가 오는 16일 중국向 AI 수요 칩 대응을 위한 신제품 3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마이크로소프트(+2.49%)는 재차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
 •(하락) 플러그파워(-40.47%), 트레스메디컬컨셉(-37.90%), 그루폰(-34.82%), 트레이드 데스크(-16.66%), 디아지오(-11.72%), 일루미나(-8.05%)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소식에 급락.

한국 증시 전망: 진실게임

•MSCI 한국 지수 ETF는 0.43%, MSCI 신흥 지수 ETF는 0.2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1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29% 상승. KOSPI는 0.6~1.0%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올해처럼 국내증시에서 업종별 호불호가 명확했던 적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 외국인은 이 달 들어 약 2조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순매수 금액의 90%가 반도체. 특히 지난 주에도 약 1.1조원의 순매수를 기록. 반도체 업종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35%로 국내증시가 11.5% 오른 거 대비 크게 아웃퍼폼 하는 중. 이 날 TSMC의 10월 매출이 전년대비 16%, 전월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은 이러한センチ먼트와 펀더멘탈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9.66	-0.72	상해종합	3,038.97	-0.47
KOSDAQ	789.31	-1.69	홍콩항생	17,203.26	-1.76
DOW	34,283.10	+1.15	인도센섹스	65,259.45	+0.55
NASDAQ	13,798.11	+2.05	유로스톡스 50	4,197.36	-0.75
S&P 500	4,415.24	+1.56	영국	7,360.55	-1.28
캐나다	19,654.47	+0.34	독일	15,234.39	-0.77
일본	32,568.11	-0.24	프랑스	7,045.04	-0.9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반도체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미 증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상승을 견인하며 지난 10거래일 중 9거래일이나 상승하며 7주만에 최고치 기록. TSMC의 양호한 10월 매출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중국向 AI 반도체 신제품 출시 등 반도체 및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 소식에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 이에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0월 고점에서 급락한 데 이어 최근 8거래일 연속 하락 기록. 다만,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간 점은 부담.

반도체, 매그니피센트 7

최근 10거래일 중 IT는 13%나 상승하며 미 증시 상승을 견인. IT업종이 S&P 500 시가총액의 29.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IT의 강세는 증시 상승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여기에 경기소비재(비중 10.6%)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비중 8.81%)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0%, 9% 상승하며 증시 상승에 일조. 위 세 업종의 합산 시총 비중은 50.75%로 S&P 500의 절반을 넘어*11월 10일 기준.

최근 랠리의 특징 중 하나는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광범위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진 10거래일 동안 S&P 500 시가총액 증가분의 55%는 매그니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기여. 그러나 연초이후로는 매그니피센트 7의 시총 증가 기여도가 92%에 달해 압도적 차이가 여전.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조사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0.4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해 10월 63.8, 예상 63.7을 모두 하회. 현재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는 70.6에서 65.7로, 소비자 기대 지표는 59.3에서 56.9로 더욱 낮아져. 이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 이 영향으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4.4%로 지난 달 4.2%에 이어 두 달 연속 높아짐과 동시에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2%로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최근 연준 위원들이 습관처럼 얘기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정'이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와. 경제학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명목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세적 데이터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기대인플레이션 관련 항목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 있어. 또 한 10월 큰 폭으로 하락한 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부진한 점은 향후 가계 소비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키워.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장 마감 후,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추고, 투자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 무디스는 부채상환 비용의 상당한 증가와 정치적 양극단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이는 향후 투자등급 하향까지 이뤄질 수 있는 '선제조치'라는 점에서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미 연방정부의 FY23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로 GDP의 6.3%에 달해. 특히, 무디스는 정책 조치가 없으면 미국의 부채 감당 능력이 매우 약한 수준으로 더욱 꾸준하고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 섹터 상승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상승. 매그니피센트 7이 포함된 IT(+2.5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68%), 경기소비재(+1.66%) 등이 상승을 주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4% 넘게 급등

(상승) 매그니피센트 7은 평균 2.35% 상승을 기록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 엔비디아(+2.95%)가 오는 16일 중국 AI 수요 칩 대응을 위한 신제품 3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마이크로소프트(+2.49%)는 재차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 독시미티(+16.24%), 시넵틱스(+10.75%), 홀로직(+7.34%)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및 연간 전망 상향 소식에 강세. 베라테라퓨틱스(+5.47%)는 Jefferies가 강력한 매출 성장을 전망하며 투자의견을 ‘보류→매수’로 상향하자 강세.

(하락) 플러그파워(-40.47%), 트레스메디컬컨셉(-37.90%), 그루폰(-34.82%), 트레이드 데스크(-16.66%), 디아지오(-11.72%), 일루미나(-8.05%)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소식에 급락. 특히, 플러그파워는 향후 운영자금 조달 어려움을 밝히며 계속기업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해. 그루폰은 4분기 매출이 7~14% 감소할 것으로 예상. 프레이배터리(-27.54%)는 BTIG가 ‘매수→중립’으로, 하와이안일렉트릭(-17.13%)은 Wells Fargo가 ‘동일비중→비중축소’로 투자의견을 하향하자 급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옥수수 가격, 3년래 최저 기록

(외환) 유로화는 지난 6일 기록한 7주 최고치인 \$1.0756에서 하락한 \$1.0686을 기록. 이 날 발언에 나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4%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1엔을 넘어서며 다시 약세를 보여. 이는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

(원자재) 철광석(함량 63.5%) 가격은 견고한 수요와 공급 위험에 대한 기대 속에 톤당 130달러로 상승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국은 약 1조 위안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제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 이에 전세계 상품 운송 비용을 측정하는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2주 최고치인 1,643포인트를 기록

(곡물) 옥수수 가격은 기록적인 공급 전망 속에 부셸당 4.7달러를 하회하며 3년래 최저치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진실게임(f.반도체)

MSCI 한국 지수 ETF는 0.43%, MSCI 신흥 지수 ETF는 0.2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6.1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29% 상승. KOSPI는 0.6~1.0%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올해처럼 국내증시에서 업종별 호불호가 명확했던 적은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 외국인도 이달 들어 약 2조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순매수 금액의 90%가 반도체. 특히 지난 주에도 약 1.1조원의 순매수를 기록. 반도체 업종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35%로 국내증시가 11.5% 오른 거 대비 크게 아웃퍼폼 하는 중. 이 날 TSMC의 10월 매출이 전년대비 16%, 전월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은 이러한センチ멘트와 펀더멘탈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반도체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1	대형 가치주 ETF (IVE)	+1.39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1.21
소매업체 ETF (XLY)	+1.66	소형 가치주 ETF (IWN)	+0.81
온라인소매 ETF (EBIZ)	+0.78	대형 성장주 ETF (VUG)	+1.96
미국 인프라 ETF (PAVE)	+1.58	중형 성장주 ETF (IWP)	+1.26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2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2.2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5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11	미국 국채 ETF (IEF)	+0.1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52	하이일드 ETF (JNK)	+0.51
바이오섹터 ETF (IBB)	+0.48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1.57	물가연동채 ETF (TIP)	+0.04
반도체 ETF (SMH)	+4.0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3,193.75	+2.59	+4.76	+6.61
커뮤니케이션	231.90	+1.68	+2.21	+1.49
경기소비재	1,280.59	+1.66	+0.92	+2.27
산업재	866.21	+1.34	+0.84	+0.61
소재	486.80	+1.16	-1.83	-0.40
금융	562.95	+1.14	+0.28	+1.98
부동산	215.43	+1.10	-2.13	+0.06
에너지	637.88	+1.07	-3.82	-7.07
필수소비재	728.23	+0.66	+0.22	+3.18
헬스케어	1,469.99	+0.60	-0.96	-3.08
유틸리티	305.68	+0.52	-2.60	+1.56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17	+1.89	-4.15	Dollar Index	105.861	-0.05	+0.80
브렌트유	81.43	+1.77	-4.08	EUR/USD	1.0686	+0.17	-0.42
천연가스	3.03	-0.26	-13.71	USD/JPY	151.52	+0.11	+1.43
금	1,937.70	-1.63	-3.08	GBP/USD	1.2227	+0.03	-1.24
은	22.28	-2.72	-4.31	USD/CHF	0.9027	-0.02	+0.43
알루미늄	2,215.00	-1.23	-3.17	AUD/USD	0.6361	-0.09	-2.33
전기동	8,035.50	-1.37	-2.46	USD/CAD	1.3801	-0.05	+1.05
아연	2,562.00	-1.56	-0.43	USD/RUB	92.3349	+0.52	-0.39
옥수수	464.00	-0.85	-2.78	USD/BRL	4.9095	-0.61	+0.13
밀	575.25	-0.95	+0.48	USD/CNH	7.3065	+0.12	+0.24
대두	1,347.50	+0.30	-0.31	USD/KRW	1,316.80	+0.51	-0.42
커피	170.55	-2.10	+0.83	USD/KRW NDF1M	1,316.10	+0.00	+0.6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652	+2.77	+7.94	스페인	3.773	+7.60	+8.90
한국	3.960	+2.50	-14.00	포르투갈	3.453	+7.20	+13.40
일본	0.850	+1.20	-7.60	그리스	3.981	+6.40	+2.50
독일	2.717	+7.00	+7.20	이탈리아	4.576	+6.20	+6.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